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의 손길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과감하게 열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당창건 73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한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건설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상징이시고 주체조선의 무궁대한 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우리 나라 극장들중에서 력사가 오랜 건물들중의 하나인 모란봉교예극장을 독특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축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한 생활극장으로 개편시킴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폐기되다싶이 했던 이 극장의 개편사업을 지난 9개월동안 직접 들어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음악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주체음악예술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일 부러워하시며 위수신것이 생활극장이였다고, 우리 나라에도 훌륭한 생활



극장리 음악홀을 건설한 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이 극장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보니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우리 당창건 73돐을 맞은 전체 당원들과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극장을 받아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은 조직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자기의 독특한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피끓는 신념과 결사의 의지를 지닌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놀라운 건설속도를 창조함으로써 극장개건공사를 200여일동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훌륭하게 완공하고 나라의 만아들부대, 근위영웅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보통강만에 새롭게 면모를 단장하고 일떠선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현대적인 건축음향기술이 안반침되고 고전미와 현대미, 예술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특색있고 화려한 건축조형미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대전당, 로동당시대 사상예술강국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연건축면적이 3만 6,610m<sup>2</sup>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확장장치를 전혀 쓰지 않는 1,200여석의 원형생음연주홀과 관현악단 창작자, 예술인들의 창작창조와 공연활동, 생활조건이 나무랄데없이 갖추어진 록음실, 창작실, 훈련실, 분장실, 사무실, 생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세계적인 음향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생활극장으로 훌륭히 꾸러짐으로써 극장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아름답고 문명한 극장, 남부럽지 않은 예술활동기지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외부와 내부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품스럽고도 우아하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극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수도의 한복판에 멋스러운 건물이 또 하나 들어앉아 풍치를 돋군다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꾸러놓으니 마음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극장에 와보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극장 연주홀의 여러 위치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며 음향특성들을 대

비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주홀의 음향이 정말 좋다고, 악기들의 생활림소리가 변색없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울림이 좋으니 관현악연주가 깨끗하고 섬세하게 들리며 정서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악단의 품위도 한결 돋군다고 하시면서 건축음향분야에서 일대 혁신이고 성공한 극장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뜻깊은 조선로동당 창건절을 맞으며 개관되는것을 기념하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 대헌피아노를 선물로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건물과 훈련실건물, 록음실, 생활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황홀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음향설계에 준하고있는 만

비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뜻깊은 조선로동당 창건절을 맞으며 개관되는것을 기념하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 대헌피아노를 선물로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건물과 훈련실건물, 록음실, 생활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황홀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음향설계에 준하고있는 만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차례의 공연을 훌륭히 진행하여 내외에 명성을 떨쳐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열적이고 세련된 예술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며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전심다해 복무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들이 혁명적예술활동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여준당의 의도와 기대를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예술적기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원형생음연주홀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며 향유물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10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여러차례 평양을 배왕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석상에서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12공동성명리행에서 진전이 이뤄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며 자신의 인사를 전해 주기 바란다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는 반도지역정세에 대하여 평가하



시고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최고지도부의 립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뤄질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석상에서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적문제들과 방법들에 대하여서도 논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게 되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미국대표단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의 성공과 조미관계발전을 위하여 쌍방사이에 의사통과 접촉채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량국최고수뇌들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나갈것이며 조만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본사기자**

## 민족이 함께 가는 새로운 려정을 펼치시어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쌓이고 쌓인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흔들러버리며 화평과 활력에 넘쳐 평화번영의 미래, 자주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삼천리강토에 펼쳐지고있는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은 열렬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기적적인 현실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헤아리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정초에 획기적인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동근 결단으로 공화국이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려사를 써나가는 도록 할것을 구상하신 그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따라 파격적인 조치들이 련이어 취하여지고 대결과 적대의 악화일로를 걷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궤도에 들이게 되었다.

어서한 분기울처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높아지고있던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려사를 써나가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새 려사를 써나가기 위하여는 그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8천만겨레에게 보내는 최대의 선물, 《남북정상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4.27선언이 탄생하게 되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실현을 위한 그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찬동을 받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게 되었다.

이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광범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념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질 민족의 소중한 꿈이 담겨져 있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열렬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포용력을 지니시고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 사변이다. 민족의 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뤄질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오늘 세인의 이목은 조선 반도에 쏠려여있다. 사실 그 누구도 올해에 들어와 그렇게 짧은 기간에 3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련이어 진행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뤄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장장 수십년간 조선반도에서는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정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 땅 위에서는 세계를 격동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도량으로 대범한 조치들을 련속 취하시어 경색국면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를 완화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세월은 또다시 조선열토로 돌아왔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세계가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세계는 또다시 조선열토로 돌아왔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세계가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또다시 조선열토로 돌아왔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세계가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세계는 또다시 조선열토로 돌아왔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세계가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세계는 또다시 조선열토로 돌아왔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세계가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경제건설의 동음이 높아지고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제품, 상품생산이 확대되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예의 새 려사가 펼쳐졌다. 훌륭한 문화봉사자들이 일떠서 사람들의 높아진 문화적수요에 이바지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농민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울려에국미를 종합대학을 건설하는데 애쓰도록 하시어 민족의 위대한 투쟁을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현대적인 CNC기계설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어려있는 과학기술증시사상과 로선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계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과학혁명을 주시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전지구 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대강을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도록 하시였고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에까지 참석하시어 대학의 교련, 연

나라의 전방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강국의 미래를 하우빨리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펼친 응대한 설계도를 따라 공화국은 과학기술의 거대한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빛나는 성과들로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최후승리의 명마루로 눈부시게 솟구쳐오르고있는것이다.

김영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도록 하시였고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에까지 참석하시어 대학의 교련, 연

시유음

# 백두산은 통일삼천리를 부른다

## 환영의 꽃바다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새무리 깃을 치며 날아 퍼진다  
분단선을 넘어 하늘길을 날아  
남녘의 사절들이 평양으로 온다

두렵게 얼어붙은 분렬의 동토를 애국애족의 불길로 녹이며  
판문점선언이 열어준 넓은 길 그 길바라 온다 온 남녘이 온다

해빛같은 미소를 함뿍 뿌리시며  
원수님 비행장에 마중나오시어  
통일사절로 귀빈으로  
뜨겁게 포옹하며 반겨주실 때  
바람결도 이슬을 머금고 흐르는듯

목매 통일합성은 하늘에 닿고  
꽃바람은 연도를 꼭 메웠어라  
대통령을 달리는 승용차행렬은  
혈육의 정 굽어치는 격정의 바다  
우에  
등등 실려오는 꽃배인가 꽃수레  
인가

진정 민족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어떤 것인가  
평양수뇌회담에 앞서  
우리 원수님

꽃길 수십리연도에 다 펼쳐주셨  
거니

영화의 화폭이 펼친 격정의 언어  
가슴을 적시고 심장을 울려서인가  
남녘의 사절들 머리숙여 인사하며

## 《9월평양공동선언》

평양! 빛나는 그 이름으로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가슴은 왜 이리 울렁이고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드는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  
조국통일문건에  
불멸의 친필존함 남기시던  
수령님영상 떠올라시인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백두에서 한나까지  
통일의 열풍 일으켜주시던  
장군님 로고 어려와시인가

수령님들의 통일년환 안으시고  
민족의 통일속망 풀어주시려  
우리 원수님 마련해주시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열광의 환호에 손들어 화답하는  
9월의 평양행 평양길

아 꿈만 같아라  
우리 원수님  
동포마중의 꽃바다우에  
환하게 보내시는 태양의 미소  
은 거례를 품어 따뜻한 평양은  
눈부신 통일세상이여라!

선언이 밝혀준 길은  
누구나 공감하고  
아무도 되돌릴수 없는  
자주에로의 직행길  
평화체로의 굽힘길  
통일변명여로의 지름길

그 어떤 도전이 앞길 막아도  
이 한길따라 깎듯이 나아갈 때  
이 땅엔 춘하추동 겨레의 기쁨 주렁  
지는  
풍요한 한계절만 있으려니

《9월평양공동선언》  
그것은 랑전의 지뢰밭을 갈아엎는  
쇄빙선  
평화변명의 대문을 열어제기는 열쇠  
한평생 통일위해 마음쓰신 수령님들께  
9월의 평양이 삼가드린 오오, 꽃바발!

## 불변의 진리

꿈인가 생시인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며  
남녘사절단은 탄성을 터뜨린다

신비경의 배정대며 무아경의 체조대형  
황홀경의 춤바다는 기적의 조화이런듯  
누구나의 넋을 앗아가는데  
《특별장》앞에선 모두가 숙연하다

힘이 없어 빼앗겼던 나라  
역경의 혈전만리 헤쳐 찾았건만  
또다시 덮쳐든 분렬의 비극  
더는 용납하지 않을 민족의 의지  
평양의 하늘가에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가슴에 새겨두시라 동포들이여

##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줄기내려 한나에 닿은  
이 땅은 삼천리  
단풍도 별갈게 물들며 불타며  
북에서 남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계절

민족의 넋과 혼이 깃든 백두산정에  
남녘사절단이 올라왔다  
통일희망의 풍요한 가을을 준

신비경과 황홀경과 장엄함에 앞서  
공연장이 강렬하게 깨우쳐주는  
하나로 뭉치면 세상 못할 일 없다는  
절대불변의 그 진리를

운명의 주인은 우리 민족  
민족끼리 민사를 의논하며  
북남관계발전의 새 지평을 열며  
통일변명의 미래를 앞당겨줄  
힘과 지혜 다 바칠 결의 백배해지나니

오, 15만 평양시민들앞에서 하신  
북남수뇌분들의 격동의 그 연설  
삼천리가 듣고 온 세상이 들으며  
끓었어라 울었어라 확신했어라  
조선민족 하나로 뭉치면  
해수는 동방에 제일강국 솟는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가슴에 품고

변화의 물결 흐르는 새로운 시대  
통성변명할 통일조국의 레일을  
장군봉이 손들어 가리키는가  
정일봉이 우리를 터쳐 축복하는가  
귀전에 광광 울려와라

## 신 홍국

민족의 성산 백두산결정에서  
북남수뇌분들 잠은 손 높이 드실 때  
막혔던 혈맥이 통하는 소리  
끓어오르던 지맥이 이어지는 소리

한눈에 다 보였어라  
거침없이 내달리는 평양—부산행 통일  
열차  
공동어간에 날리는 고기베들의 만신기  
빠스라고 한나철에 평양—서울 오가는  
우리 겨레 우리 형제들의 밝은 그 모습...

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백두가 맺어준 9월의 언약 아니던가  
그래서 오늘의 특대사변 만고에 전하려  
천지의 푸른 물은 격랑을 일으키고  
한나산 백록담도 감각에 설레여라

민족의 새 력사가 태동하는 산정에  
피더운 가슴으로 함께 오른 8천만이며  
이제껏 찾아온 분렬은 너무 길다  
백두령장의 보우마파 통일대통령을 열며  
가자, 내친김에 한나까지 곧바로 내닫자

이제 백두의 단풍은  
제주도 한끝까지 붉게 물들이려니  
한모습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땅에  
영원한 평화변명의 한계절만 가우자  
아, 백두산은 통일삼천리를 부른다!  
(인터네트플래지)  
《우리 민족끼리》에서 전제)

## 향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선언

평양에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는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변명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그를 구체화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 조항에서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면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외세의 의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시작되던 어언 70여년, 우리 겨레는 너무나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최대접점지역

인 서해해상에서 북남사이의 총포란이 오고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 올랐던 적도 있었다.

군사적긴장상태가 최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해의 엄혹한 정세만 놓고보아도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하기에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은 거례와 세계앞에 약속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 이후 북남사이에는 장평급 군사회담들과 군사실무회담들이 진행되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이 진지하게 협의되었다.

이런 속에서 력사적인 평양수뇌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화해와 평화변명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제5차 북남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해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향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남군사공동위협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상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할것을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시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은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리행되지 못했던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히 리행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누구나 뜻과 마음을 합쳐 북남선언리행에 투쟁있게 기여하여야 한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엔 눈부신 민족의 전망이 있고 광활한 통일의 지평이 있다.

우리의 넋이 있으며 버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접촉과 래왕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적대책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회이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수없이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끓어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사이에는 긴밀한 당국대화과 협상,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열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진보적인류의 커다란 지지관동을 받고있다.

##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화해와

공리공평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올해안에 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

하기 위한 승고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폭 넓게 반영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접촉, 끊어 끊어와 도로련결과,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흡수진 가족 및 친척상봉, 북남경제협력의 상징적인 개성공업지구 설치 등 격동적인 사면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선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된 후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리공평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일념으로부터 북남간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북남간 민족의 기본적인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이 과정에 우리 겨레는 동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나

가는 바로 여기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이진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경원》이 들어서서 이후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은 하루이침에 되서리틀 맞고말았다. 보수역적배당은 개성공업지구를 폐쇄시키것을 비롯하여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하였으며 남조

레의 넋이 있으며 버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접촉과 래왕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적대책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회이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수없이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끓어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통일교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은 거례의 지향과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평화와 번영,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의를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져나가기로 한다.

그 누구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시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측의 옮겨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찾자리에 놓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룩한다

는 확고한 판공과 립장을 가지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 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은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변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징표로 되는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도 채택되었다.

이 모든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에 대한 은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남공동의 노력의 아나은 결실이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북과 남이 뜻

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헤별 일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은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확고히 들어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은 거례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 민족중시, 민족단결의 립장에 서서 전면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킴으로써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변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징표로 되는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도 채택되었다.

이 모든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에 대한 은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남공동의 노력의 아나은 결실이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북과 남이 뜻

본사기자 최광혁

# 전국이 한 자리에 모여 승부를 겨루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평양시 대중체육기술을 런마해온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높은 실력을 펼쳐 보였다. 경쟁적인 웅변과 연방 탄성을 울리는 관람자들의 모습은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대중체육발전수준과 열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에서는 전국의 도, 직할시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중체육선수들이 배구, 탁구, 바드민턴, 씨름을 비롯 10여개의 종목을 놓고 우승을 겨루었다.

## 체육대회가 말해주는 우승의 비결은

치밀하게 벌어진 조별연맹전 경기들은 통쾌함과 후련함을 안고 다음 단계의 승자전에 오를 팀들과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다음번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팀들의 엇갈린 모습을 남기었다. 올해 처음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경기종목으로 선정된 바드민턴경기장에서 기자가 보게 된 감독들과 선수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자기 지방의 대중체육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강력히 어려워있었다. 라신시팀의 감독인 박복희 선생은 《얼마든지 이길수 있는 경기에서 패한것이 정

승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에 대한 취재도 좋았지만 기술적인 차이는 무시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번 체육대회에서는 꼭 우수한 실력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하였다. 평안남도팀과의 경기를 가법치 치르고 승자전단계에 오른 강원도팀선수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드민턴경기종목에서 우리 강원도가 높은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체육대회를 대하는 우리 강원도사람들의 관점과 팀장이 다른 듯하다.》고 하였다.

지 않았다. 경기들에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뉴대를 다지는 참가자들의 모습 또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꾸준한 노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선수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승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를 통하여 누구나 대중체육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체육대회의 막은 내리고 선수들은 헤어졌어도 온 나라에 또 한차례의 체육열풍을 몰아온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 고향과 자기 지방,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우승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누구에게나 없지 않다. 그러나 잡다하고 능력 발휘하게 하는듯 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중체육부문 선수들의 높은 기술과 훌륭한 경기기술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배구종목만 놓고보아도 지난 시기에는 각 도(직할시)마다 기술적 차이가 있었지만 한해가 다르게 그 수준이 올라 이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었다. 여기에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감독들이 아니라 각도와 시의 일꾼들이 대중체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과 함께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를 계기로 자기 지방의 대중체육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깃들여있다. 대중체육부문 배구경기 나조에 속하여 평안북도팀을 2대 1로 누르고 승리를 쟁취한 남포시팀의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경기참가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우승을 쟁취할 일념을 안고 높은 조약과 민첩한 공방기로 승리를 거두었다. 남포항 부원으로서 사업하면서 이번 체육대회에 남포시팀의 배구감독으로 참가한다는 김정철은 비록 자기팀의 선수들이 경기경험은 어리지만 속도와 힘에 있어서 상대팀을 얼마든지 통가하는 실력이 있다고 보고 경기를 대담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담성과 자신심, 승리와 용맹을 안겨주는 체육경기야말로 사람들을 고상하고 건강한 정신육체적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황해남도팀과 강원도팀의 선수들이 펼쳐보인 경기들 역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해온 과정에 헌명한 독특한 기술들이 연방 펼쳐지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과 응원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원도팀의 배구선수로 참가한 김국철은 《체육대회를 위해 정말 많은 훈련을 하였다. 공장에서 일도 하고 배구훈련도 하면서 우승의 메달을 쟁취했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하면서 다른 도들의 실력 또한 놀라우리만큼 우수하다며 감탄하였다. 그것이 크든 작든, 국제경기든 국내경기든 체육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오로지 우승이라는 영예를 위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한다. 마한가지로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에서도 훌륭한 경기성적으로 자기의 고향을 빛내고싶은 이들의 마음들을 애순간순간 느낄수 있었다.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며 그리운 고향을 빛내고싶은 이런 마음과 헌신의 땀방울들이 승리의 꽃보라인양 경기장마다에서 활날릴제 그 모습을 TV화면으로 지켜보는 고향사람들, 자기 도내인들은 또 얼마나 큰 흥분과 격정을 느낄것인가. 그 마음을 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열정을 다 바치는 경기장들에서 우리는 약속하고 쫓아지는 공화국의 오늘을 보았다.



은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의 어느 종목이나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바드민턴경기였다. 그것은 바드민턴경기종목이 올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바드민턴경기는 것이 달린 공과 채로 하는 구기종목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민첩성과 판단력 등을 키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공원과 유원지 등 곳곳에서 바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바드민턴경기가 한창인 평양체육관은 관람자들과 응원자들로 초만원이 되고있었다. 경기를 보느라니 선수들의 전문가 못지않은 높은 기술수준과 경기기술에 탄부를 금할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자강도팀과 평안남도팀간의 경기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들중의 하나였다. 경기가 시작될지 얼마안되어 평안남도팀의 전술적의도를 파악한 자강도선수들은 짧은 처널기에 의한 순간 매리기로 연속 점수를 올렸다. 평안남도팀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높은 이동기술을 가진 키가 작은 림예선수들은 살짝공으로 림예 점수를 회복하기도 했다.

## 바드민턴경기에서 비끼는 대중체육열기

평안남도팀의 워신 선수가 바로키가 약하다는것을 간파한 자강도팀 선수들은 앞으로 출질처럼 하다가 뒤로 주는 속임수를 쓰면서 미약한 워신 선수에게 연속 매리기에 의한 집중공격을 들이쳤다. 경기는 자강도팀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백용수(40살) 선수는 《단식경기와 달리 복식경기에서는 두사람의 마음을 맞추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이길수 있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합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알고보니 백용수선수는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바드민턴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부터 배구기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경기에 참가할 정도의 높은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다는것이다. 짧은 시간안에 많은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경기에 가장부담이 들어서 참가하는것이 힘들지 않은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남부로서 모두가 참가하는 대중체육이 아닌가고 하면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실체적으로 느꼈다고 하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체육발전면모와 약동하는 숨결을 체부로 절감하게 하는 체육관을 떠나기가 정말 아쉬웠다. ... 본사기자 김진혁



미에 대한 관심이 높은것은 조국의 녀성들도 다름없었다. 유난히 해일이 따가운 무더운 여름철 피부가 그늘러있는것을 막으려고 녀성들은 햇빛방지크림을 구제적으로 바르는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양의 양산을 쓰기도 한다. 그만큼 평양녀성들은 흰 피부,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는것이다. 평양뿐아니라 조국땅 여러곳을 돌아보노라면 미에 대한 녀성들의 관심이 높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미에 대한 말이 나오니 한가지 목격한 일이 떠오른다. 지난해 나는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었다. 전람회장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기계설비와 경공업, 화학, 전자제품, 건재, 식료용품 및 의약품, 문건기재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서 특별히 나의 눈길을 끄는 전시대가 있었다. 수많은 녀성들과 화장품까지 어찌성을 쌓고있는 화장품대. 최근 어디를 가나 조국인민들속에서나 해외동포들, 지어 라국사람들속에서까지 조국의 화장품은 인기를 모으고있다. 이에 대해서 잠깐 화제를 돌려

이야기하자고 한다. 몇해전인가 고려호텔에 투숙하던 나는 호텔로비에서 우연히 두 녀성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영국에서 온 관광객녀성과 조국의 동역원녀성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는 사이인듯했다. 영국인녀성: 《아가씨의 얼굴이 인기있는 《금강산》, 《은하수》, 《봄향기》 화장품

의 천연원료로 만든 화장품들. 《금강산》 화장품은 실로 외국에서 유행되는 유명한 화장품 못잖다. 이것은 내 소견일뿐더러 나의 동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른 이름의 화장품을 만나게 되었던것이다. 《은하수》, 《은하수》를 제격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최근에 평양화장품공장은 세계 최수준의 화장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한다. 산뜻하고 멋진 포장용기로 하여 보기만 해도 눈길을 모으는 여러 가지 색깔과 물크림들에 이끌려 많은 녀성들이 매대를 그저 지나치지 못하고 멈추어서서 저마다 물었다. 《〈은하수〉 화장품의 미백효과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검버섯도 없어지니까?》, 《이 화장품을 여러해째 써오는데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가 점차 희고 부드러워지는것이 알립니다.》 손님들의 열띤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있는데 이 제품을 출품했

다는 공장의 연구사가 손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것이였다. 《이 〈은하수〉 화장품은 오늘 세계화장품공업에서 기본소재로 되고있는 특색화장품의 일종으로서 천연원료를 많이 리용한것으로 하여 화학원료나 성분이 인체에 주는 해독성을 줄이고 피부안정성과 기능성, 환경보호, 치료효과를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답니다.》 공장에서는 21세기를 대표하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고 입고 공부시키느라 화장같은것에 언제한번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사셨다. 고작해야 아버지가 어느해 설날에 도회지에 갔다가 사다준 가격 이 쌀 분크림을 찍어 바르시는게 화장의 전부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화장한 얼굴보다 화장기 전혀 없는 맨 얼굴만이 기억

그런데 조국에서 어느새에 화장품기술이 발전되었다는 나라들이 많은 화장품들을 쏟아낼수 있게 되었는데 조국을 자주 찾는 나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솔직히 조국인민들이 적대세력의 악한 봉쇄와 고립압살을 오죽이나 많이 받고 살았던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일을 보러 갔던 나와 우리 일행은

이야 하는데 이것을 얻어내는데는 화학적합성방법과 천연재료를 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화학적합성방법으로 만든 기능성재료들은 사람들의 피부와 접촉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심하게는 피부병까지 발생시킬수 있는것이다. 반면에 천연재료를 기능성화장품생산에 리용하면 그런 현상이 없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선 이미 전에 벌써 생물공학방법, 초립계류추출기술에 의한 천연물질추출방법으로 미백제, 보습제, 로화방지제와 같은 기능성재료를 생산하여 화장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는것이다. 이곳을 참관하면서 들은 흥미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화장품분석소에서는 《봄향기》 화장품과 그 나라의 화장품을 놓고 로화방지효과에 대한 대비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봄향기》 화장품과 대비적인 분석을 진행한 그 화장품으로 말하면 세계 60여개 나라의 수천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10여 년동안 연구개발한 력사가 오랜것이었다. 이러한 화장품과의 경쟁쟁이라고 할수 있는 대비분석에서 조국에서 만든 화장품의 로화방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분석자료는 인터넷상에 까지 공개되어 세계 각국의 화장품기술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그때 나는 《봄향기》 화장품을 사가지고 속으로 돌아왔다. 《봄향기》 화장품,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릴 조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더욱 아름답게 조국녀성들의 모습이 그 자그마한 화장품에 다 비껴있는듯 했다. 재중동포 김영희

## 인기있는 《금강산》, 《은하수》, 《봄향기》 화장품



#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산업미술

최근 공화국에서는 중앙 산업미술 전시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으며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미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증하고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인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시회장에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공화국의 산업미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19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들과 그 실현제품,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산업미술은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업미술이 개인주의적생활양식에 바탕을 두고 리용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화국의 산업미술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산업미술창작가들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미감,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산업미술을 해나

간다는 주제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실용적인 산업미술도안들을 내놓음으로써 공화국의 산업미술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번에 전시된 도안들은 공화국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게 은근하면서도 뜻이 명백하고 민족적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감이 나게 창작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는 도안창작가들의 높은 실력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갈매기형식의 비행운표식과 비배정서체로 쓴 《갈매》라는 글자로 동해에 뜨는 해를 형상한 갈매비행장마크도안, 갑자기 위생모를 쓰고있는 삼지연갑자가루생산공장마크도안을 비롯한 마크도안들은 도안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특성이 한눈에 안겨오고 주제가 명백하게 창작됨으로써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의 밭, 우리의 향기》라는 주제로 창작된 상표도안들은 민족적인 정서와 미감이 잘 살아나게 창작되었으며 《도로청소차도안》, 《리대식중합수화기도안》을 비롯한 여러 도안들은 제품의 기본요소와 부

분품들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제품의 성능과 실용성을 조형적으로 잘 나타내었다.

인민들의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품모와 전투적인 생활기풍이 안겨오는 의상, 방직도안들과 사람들의 생활상련리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판도안들도 세롭고 특색 있었다.

이번 산업미술전시회에는 전문창작가관들의 창작가들은 물론이고 교원, 연구사, 학생 등 수많은 애호가들도 참가하여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었다.

전시회가 개막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기관, 기업소, 공장을 비롯한 수백개의 단위에서 수많은 관계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한것은 나날이 높아가는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기대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중앙산업미술전시회는 공화국인민들에게 더욱더 부강할 공화국의 매일, 더욱더 행복해질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게 해주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해주었고.

본사기자 현은경



# 사화 은달과 평강공주 (3)

글 최규환, 그림 김영희

고구려에서는 언제나 봄 3월 3일을 기하여 락랑궁 언덕에 모여서 사냥경기를 하였다. 은달도 마침내 무사의 한사람으로 그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은달이 비로소 그곳에 참가하기를 결의하였을 때 공주는 그를 격려했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중에는 오늘날의 당신만 무사도 드문것 같소이다. 아무쪼록 이번 락랑궁사냥에서 꼭 장원으로 뽐히도록 해야 합니다.》

은달이 그곳에서 장원으로 뽐힌다면 우선 오늘날까지 은달을 바로로 치부하던 공주의 아버지 왕위에 얼마나 몇 몇 할것인가.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상부 고씨의 아들들의 거만한 코대도 보기 좋게 꺾어놓을수 있을것이다. 그는 그것을 헛된 꿈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공주는 남편의 출진을 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다. 그는 우선 그날을 위하여 날레고 좋은 말 한필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기에 갖은 정성을 다하였다.

《옛말에 적의 장수를 잡아던 자가 언젠가 자랑삼아 하던 말이였다.》 그것은 궁중에서 말을 먹이던 자가 언젠가 자랑삼아 하던 말이였다.

마침내 사냥경기의 날은 닥쳐왔다. 그것은 평양성에서 멀리 않은 락랑궁 언덕에

멀지 않은 락랑궁 언덕에 있었다. 이 사냥경기는 옛날부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날이면 봄, 매해지, 사슴, 노루 등을 사냥하여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해 농사의 풍년흉기를 빌곤하였다.

이날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구름같이 모여들고 왕도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먼저 제물을 마련하기 위한 장엄한 사냥경기가 벌어지는것이였다.

락랑궁 언덕기슭 마을들에 살자낱, 오얏꽃, 앵두꽃이 한창이였다. 그리고 개강은 이미 풀린지 오래여서 강쪽으로 늘어진 버드나무가 실실이 푸르러가는 화창한 봄날이였다.

궁중의 행렬이 한층 화려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탄 큰 가마를 가운데 두고 궁인들의 차림이나 단장은 물론 말과 수레, 기구의 금은장식이 화려하고 호화로운 금위장 줄과 5부 여러 장수의 투구 갑옷들이 또한 찬란하였다. 궁악소리가 높이 울렸다.

백성들도 고운 옷을 입고 구경을 하느라고 온통 떨쳐나섰다. 공주는 남편을 락랑궁으로 보내고나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눈먼 시어머니의 손을 이끌고나섰다.

무사들은 일제히 사냥터에서 렬을 지어섰다. 모두 수백명이 넘는 무사들이였다. 그들은 누구나 훌륭한 차림새를 갖추었다. 그가운데는

세련과 같이 상부 고씨의 아들도 보이였다. 그는 황금빛 투구를 쓰고 역시 황금빛 비늘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스스로 득의만만한 얼굴이였다.

그러나 은달도 그날은 누구에게도 짝지 않는 훌륭한 차림이였다. 그는 머리에 절풍(고구려때에 벼슬에 따라서 쓰던것)을 쓰고 푸른 단이 달린 연녹색옷을 입었으며 자주빛 가죽신을 신은 거만한 차림이였다. 그리고 말마루에 높이 앉아 한련손에 칼지를 끼고 큰활을 잡았으며 다른 한편 어깨에 화살단이 목처럼 전문을 매었다. 살던 말무에 오른 그의 건장한 체구는 위풍이 당당하였다.

공주는 뒤기슭에 선채 만족한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고있었다. 드디어 출발의 신호가 내렸다. 수백의 용사들이 일시에 자리를 차고 달려나갔다. 무사들의 함성과 말발굽소리는 락랑궁의 하늘을 뒤흔들 어놓았다.

궁중들속에서 환성이 울랐다. 이어서 무사들이 흉편지를 자욱히 남기고 등덩이를 넘어 멀리 사라져갔다.

《누가 장원을 할것인가?》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이였다. 그러나 여전히 화제의 첫머리에 오른것은 상부 고씨의 젊은이였으며 누구도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은달은 서슴지 않



# 금강산 비로봉의 해돋이

해발 1 639m에 달하는 비로봉은 금강산의 주봉을 이룬다.

여기서는 사방이 탁 트이여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들을 내려다볼뿐 아니라 동해바다와 수백리 거리의 모든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금강산의 절묘하고도 웅대하며 장쾌하고도 통쾌함이 그지없는 아름다운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다.

동쪽으로는 외금강과 해금강이, 서쪽으로는 내금강의 기묘한 자태가 한눈에 바라

보인다.

여기 비로봉에서 외금강을 바라보면 웅대하고 장엄하며 씩씩한 기암, 준봉들의 경치가 안겨오고 내금강 일대를 바라보면 수려하고 은화유정한 모습이 안겨온다. 그리고 해금강쪽으로는 고성향과 멀리 총석정에 이르기까지 참판과 반도, 설들로 무수히 들충날쭉한 해안선이 안겨오며 무언히 펼쳐진 동해바다를 한눈에 안겨온다.

주제95(2006)년 9월 어느날 이른새벽 금강산의

비로봉에 오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돋이가 정말 불만 하다고, 누구나 다 와서 비로봉의 해돋이를 보게 해야 한다고, 금강산에 왔다가 비로봉의 해돋이를 보지 못하면 금강산구경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른새벽 비로봉에 오르던 동해의 하늘가엔 안개구름이 가리어 하늘과 바다를 분간할수 없다. 한동안 있으면 붉은 노을속을 뚫고 수평선위로 마지 붉은 쇠물이 뿜어 번지며 이글거리는 불도가니

가 나타나네 이것이 바로 비로봉의 해돋이다. 그 빛이 짐작 사방을 비추어 아침안개속에 금강산의 모습이 밝아온다. 황금빛의 태양이 수평선위에 눈부신 나래를 펴고 솟아오를 때면 산봉우리들은 보석을 박은것처럼 번쩍이며 그 용장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는 광경 또한 장엄하기 그지없다.

예로부터 수많은 탐승객들은 비로봉에 올라 천하정승 금강산을 노래하였고 며칠간 배바위에서 우동불을 괴워가

며 비로봉의 해돋이를 맞이하곤 하였다고 한다.

은 천지에 붉은 빛발을 뿌리며 멀리 수평선 한끝에 머리를 내밀었던 아침해가 커다란 붉은 반원을 그리면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거대한 태양은 자기의 붉은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며 바다위로 떠올라 더욱 붉게 붉게 타고온다.

비로봉에서의 해돋이경치는 금강산의 일만경치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히고 있다.

리대영

묘길상돌들은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 만폭동의 묘길상알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들이다.

이 돌들은 묘길상알에 있는데 넘적한 받침돌에 기둥돌을 세우고 그위에 사방이 트인 불집돌, 머리를 올려놓은것이였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60m이다. 아래에 방형의 받침대를 놓고 그위에 높이 63cm의 기

둥돌을 4개 세웠다. 불집기둥들은 안쪽만 모가 나게 하고 다른 3편은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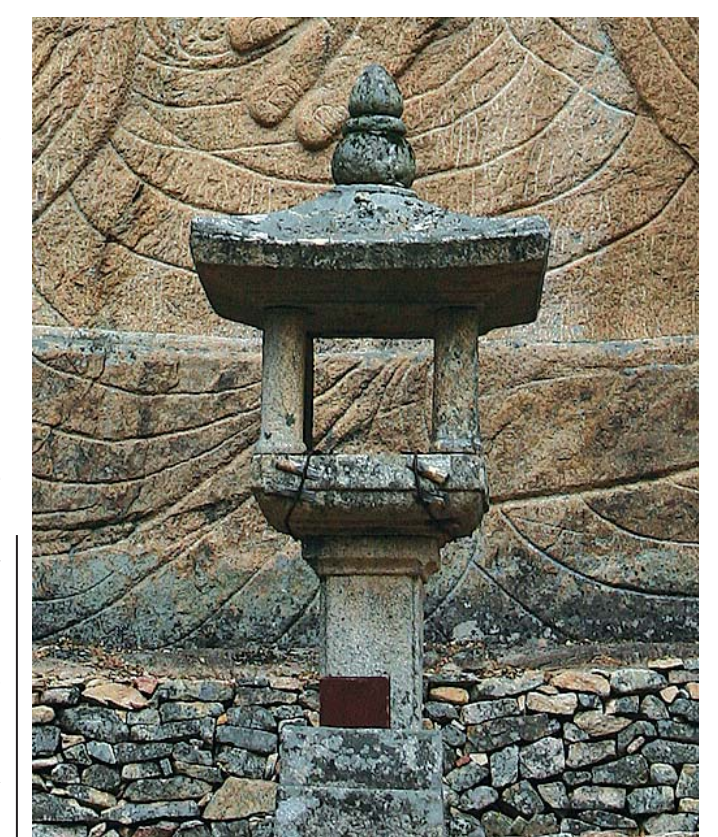
# 역사유적 묘길상돌등

이루도록 하였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을 2개 포개놓았다. 이 돌들은 불집대돌과 지

둥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들의 받침대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불집기둥들은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보여주며 지붕돌은 목직할감을 준다. 묘길상돌들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본사기자



묘길상돌들은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 만폭동의 묘길상알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들이다.

이 돌들은 묘길상알에 있는데 넘적한 받침돌에 기둥돌을 세우고 그위에 사방이 트인 불집돌, 머리를 올려놓은것이였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60m이다. 아래에 방형의 받침대를 놓고 그위에 높이 63cm의 기

둥돌을 4개 세웠다. 불집기둥들은 안쪽만 모가 나게 하고 다른 3편은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을 2개 포개놓았다. 이 돌들은 불집대돌과 지

둥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들의 받침대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불집기둥들은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보여주며 지붕돌은 목직할감을 준다. 묘길상돌들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이루도록 하였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을 2개 포개놓았다. 이 돌들은 불집대돌과 지

둥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들의 받침대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불집기둥들은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보여주며 지붕돌은 목직할감을 준다. 묘길상돌들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묘길상돌들은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 만폭동의 묘길상알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들이다.

이 돌들은 묘길상알에 있는데 넘적한 받침돌에 기둥돌을 세우고 그위에 사방이 트인 불집돌, 머리를 올려놓은것이였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60m이다. 아래에 방형의 받침대를 놓고 그위에 높이 63cm의 기

둥돌을 4개 세웠다. 불집기둥들은 안쪽만 모가 나게 하고 다른 3편은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을 2개 포개놓았다. 이 돌들은 불집대돌과 지

둥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들의 받침대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불집기둥들은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보여주며 지붕돌은 목직할감을 준다. 묘길상돌들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이루도록 하였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을 2개 포개놓았다. 이 돌들은 불집대돌과 지

둥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들의 받침대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불집기둥들은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보여주며 지붕돌은 목직할감을 준다. 묘길상돌들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